

리투아니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5
IV. 국제신인도	7
V. 종합의견	8

리투아니아

I. 일반개황

면적	65천 km ²	GDP	375억 달러(2007년)
인구	3.4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11,033달러(2007년)
정치체제	자유민주제	통화단위	Litas(LTL)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2.52

-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나, 천연자원이 적은 편이어서 구소련 시절부터 일찍이 공업지역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제조 기반을 갖추었음.
-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정부의 친서방 정책 표방과 적극적인 시장 개방으로 경제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 2004년 5월 EU 가입을 통해 유럽 시장의 진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내외국인 동등 대우 조치와 유럽·CIS 진출 거점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제성장률	10.3	7.3	7.9	7.7	9.2
재정수지 / GDP	-1.3	-1.5	-0.5	-0.2	-0.5
소비자물가상승률	-1.2	1.2	2.7	3.8	5.7

자료 : IFS 및 EIU

□ 고도성장 지속 속에 물가상승 우려

- 내수 확대, EU 펀드 유입 및 고용 증가 등에 힘입어 2007년 9.2%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추정되며, 2008년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 내수 확장세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는 다소 낮은 7.4%를 기록할 전망이다.
- 그러나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 상승, 소비세(excise tax) 인상 등으로 2007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5.7%로 추정. 또한, 주요 천연가스 공급원인 러시아의 Gazprom社가 2008년부터 천연가스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어서 금년도 물가는 더욱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 재정수지 안정적 추세 유지

- 최근 고용 증가, 조세 징수기반 개선 등이 있었으나, 개인소득세율 인하(33%→27%)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2007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0.5%로 전년(-0.2%)에 비해 다소 악화됨.
- 금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나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아 수급불안 우려

- 원유정제 분야는 국내 총 산업생산의 30%(2005년 기준)를 차지하는데, 원유 수입을 대부분 러시아에 의존해왔음.
- 국내 최대 정유공장인 Mazeikiu는 최근 러시아가 아닌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Mazeikiu 대주주가 2006년 폴란드 PKN Orlen으로 변경됨에 따라 러시아가 원유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임. 표면적인 이유는 송유관 보수이나 실제로는 지분 매각에 대한 불만으로 알려짐.

□ 해외이주자 증가, 출산률 저하로 노동인력 부족

-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영국, 아일랜드 등 해외로 이주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2001~05년 중 총 노동인구의 7%가 이주하였으며, 출산률 저하 등으로 인구가 349만명(2001)에서 339만명(2007)으로 감소함.
- 엄격한 노동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통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경제규모가 작으나 비교적 다양한 제조 기반 구축

- 구소련 시절에 중점적인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음식료, 섬유, 목재, 전자, 석유화학 등 공업기반 조성하였으며, EU 가입을 통한 석유, 목재, 화학 등 제품의 EU 시장 수출로 제조업 부활
- 제조업 분야 총 생산의 60%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주로 섬유, 화학품, 석유, 전자제품 등임.

□ CIS·러시아 진출거점으로서의 인식과 내외국인 동등 대우 조치로 외국인 투자 유인

- CIS 진출거점으로서의 인식, 내외국인 동등 대우 등으로 외국기업들이 동국 민영화에 적극 참여, 이에 따라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임.

- 또한, 금융, 무역,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면서 2006년 현재 서비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함.

□ EU 가입으로 시장 확대 기반 조성

- 2004년 5월 EU 가입으로 EU 시장 진출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섬유, 목재, 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증대되었으며, EU로의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체의 63%, 62%를 차지하고 있음.

□ 민영화 대부분 완료

-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경제의 고도성장 및 서방 경제 편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2006년 12월 Mazeikiu Nafta (Mazeikiai Oil)의 지분 30.7%를 폴란드의 PKN Orlen에 매각(8억 5,200만 달러)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 상 수 지	-1,278	-1,725	-1,831	-3,218	-5,453
경 상 수 지 / G D P	-6.9	-7.7	-7.1	-10.8	-14.5
상 품 수 지	-1,704	-2,383	-2,916	-4,209	-5,690
수 출	7,658	9,306	11,774	14,151	17,300
수 입	9,362	11,689	14,690	18,360	22,990
외 환 보 유 액	3,372	3,512	3,720	5,654	8,393
총 외 채 잔 액	7,465	9,483	11,201	16,199	21,435
총외채잔액 / GDP	40.2	42.1	43.5	54.4	57.1
D. S. R	22.6	14.6	16.9	16.6	22.9

자료: IFS, EIU

□ 경상수지 적자폭 크게 확대

- 2002년부터 리타스화를 유로화에 페그시킴에 따라 2006년까지 달러화 대비

35% 평가절상되어 수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됨. 또한, 수입의 가파른 증가세, 외국인기업의 과실 송금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 등으로 2007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보다 무려 23억 달러 증가한 55억 달러(GDP의 14.5%)를 기록함.

- 2006년 10월 Mazeikiai 정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복구가 완료되고 EU 구조기금의 유입과 국외 근로자들의 송금 증가로 인한 이전 수지 흑자 증가로 2008~09년 경상수지 적자폭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꾸준한 증가세

- 활발한 외국인투자 유입에 힘입어 2007년 외환보유액은 전년보다 27억 달러 늘어난 8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월평균수입액은 3.57개월분에 불과하나 점차 개선되는 추세임.

□ 총외채잔액 GDP의 57%에 달해

- 2007년 총외채잔액은 민간부문의 단기외채 급증 등으로 GDP의 5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D.S.R은 23%로 높은 수준임.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소수연립정부로 구성된 현 정권 기반이 취약하나 혼란 가능성 낮아

- 의회의 141석 중 62석을 확보한 4개 정당(사회민주당, 농민당, 자유중도연합당, 자유민주당)의 연정으로 구성된 정부의 기반이 다소 취약함.
-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며 조기 총선을 주장하나, 대통령의 정부 해산 반대로 총선은 당초 예정대로 금년 10월에 실시될 전망이다.

□ 친서방 정책 지속 추진

- CIS 국가들 중 가장 먼저 NATO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1994년)하여 2002년에 가입하였으며, 2002년에는 두 개의 핵시설을 폐기시키는 조건으로 EU 가입이 허용되어 2004년 5월에 EU 회원국이 되었음.
- 2003년에는 국내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에도 참가하는 등 미국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친서방 정책으로 러시아와는 다소 관계 소원

- 2002년 NATO 가입, 2006년 Mazeikiu 정유공장에 대한 러시아의 원유 공급 중단 등으로 양국간 관계가 소원해짐.

2. 사회 및 소요·사태

□ 고용 확대로 사회적 안정 유지

- 인구의 83%가 리투아니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안정을 위협할 만한 인종·지역간 갈등은 없음.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높은 실업률(2001년 17.9% 기록)이 민영화, 외국인 투자 증가 등에 따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06년 5.7%로 감소되었음.

□ 급격한 물가 상승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평화적으로 진행

- 2007년 11월 24일, 고유가, 음식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7년 11월 7.8%까지 치솟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5천명이 시위를 벌였음.
- 이번 시위는 구소련 독립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이기는 하나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됨.

IV.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S&P : A-('04. 2) → A('05. 12)
- Moody's : A3('03. 12) → A2('06. 9)
- Fitch : A-('04. 7) → A('06. 10)

- OECD : 2등급('06. 1) → 2등급('07. 1)
- ICRG : 60/140('07. 4) → 62/140 ('07. 10)
- Euromoney : 49/184('07. 3) → 52/185('07. 9)
- II : 42/174('07. 3) → 47/174('07. 9)

2. 주요 ECA 인수태도

- US Exim : 최고의 부보율 적용
- ECGD : 최고의 부보율 적용
- Euler Hermes : 단기 전액 인수가능
- Atradius : 최고의 부보율 적용

3. 외채상환실적

□ 외채규모가 과도하고 단기 외채 비중 증가로 우려 확대

- 총외채는 2007년 말 현재 214억 달러로 GDP의 57%이며, 이중 공적 외채는 26%임. 최근 외채의 급격한 증가는 국제신인도 향상에 따른 민간부문의 외자 도입 및 국제 시장에서의 정부 채권발행(2002년 4억 유로, 2006년 6억 유로의 유로본드 발행)에 기인함.

- 최근 들어 총외채의 33%에 육박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단기외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의 확고한 개혁 및 서방경제 편입 의지로 단기적인 외채 위험은 높지 않음.

V. 종합의견

- 경제적으로 고유가,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과 단기외채 급증 우려에도 불구하고 EU 가입으로 인한 수출시장 확대, 민영화 추진 완료, 외국인투자 증가 등에 힘입은 경제 활성화로 향후 견실한 성장이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소수연합 정당의 현 정부 정치기반이 취약하지만, 이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친서방 정책 표방에 따라 EU, 미국 등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얻고 있음.

전문연구원 심현정(☎02-3779-6655)

E-mail : hjshim@koreaexim.go.kr